

저비용 고효율... 시설도 운영도 '금메달'



광주세계수영대회 결산

<1> 알차고 실속있는 대회

지구촌 수영 축제인 '2019 FINA(국제수영연맹)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8일 폐막식을 끝으로 17일간의 뜨거운 열전의 막을 내린다.

〈관련기사 2·3·22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지난 12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94개국의 선수단 2537명의 국가 대표 선수가 참가해 '금빛 물살'을 가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열린 역대 국제대회 사상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들어간 반면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도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평가 받았지만, 세계 5대 메가스포츠(월드컵·하계올림픽·동계올림픽·세계수영선수권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로 꼽히는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 총 사업비는 2244억원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4조2853억원 대비 5.2%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대회처럼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 2011년 대구 세계육상대회 6572억원 대비 62.8%의 적은 비용으로 세계 5대 메가스포츠 중 하나인 세계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는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임시 수조를 사용해 과감하게 시설비를 줄였고,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물품을 재활용해 사용하면서 운영비를 크게 절감시켰기 때문이다.

경영과 다이버 종목이 열린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지난 2015년 U대회 당시 사용했던 기존 경기장에 관람석 1만1000석을 증축했다.

또한, 아티스틱 수영 경기장은 기존 염주체육관을 리모델링한 뒤 임시 수조를 설치해 사용했다.



25일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경영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이 불을 환히 밝히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시 쓰고, 빌려 쓰고, 얻어 써 철저한 예산 절감
 사업비 평창 대비 5.2%·대구 육상 대비 62.8%
 임시 경기장 많아도 '대회 시설 최고' 찬사 받아
 선수단·심판 등엔 남도의 맛과 멋 전달 감동 안겨

치해 사용했다. 수구 경기장은 남부대 축구장에, 하이다이빙 경기장은 조선대 축구장에 임시 수조와 관람석을 임시로 설치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임시로 만들어진 경기장의 철골 등 건축 자재는 국제수영연맹의 공식 후원사인 독일의 레이어사로부터 전부 빌려 사용하면 시설비를 더욱 줄였고, 염주체육관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리모델링을 통해 광주시민들의 새로운 체육시설 공간으로 탄생하게 됐다.

특히 일부 경기장을 임시 시설물로 사용하면 따라 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철거돼 향후 운영비와 관리비 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임시로 가설된 경기장이기는 했지만, 와킨푸울 FINA 시설위원장은 "역대 대회들과 비교해도 이번 대회의 시설은 최고다"라는 찬사를 하기도 했다.

선수촌도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때와 같이 도심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활용했다.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선수촌은 25개동 1660세대에 선수와 임원 4000여명, 미디어 관계자 2000여명 등 모두 6000여명이 입촌해 대회 기간 중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시설비 이외에도 대회 운영비를 절감하는 노력도 돋보였다. 광주시와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사용했다가 창고에 묵혔거나 버려질 예정이었던 7억5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재활용해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장 내 휴지통 2000여개, 차단 벨트 1850개, CCTV 322대와 선수촌 내에서 사용 중인 카트, 분리수거 거치대, 집기류, 침대 시트, 세탁망, 세정제, 차약, 삼푸 등 소모품 43종, 25만9000여 개의 물품이 모두 재활용해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낭비를 막았다.

이처럼 '다시 쓰고, 빌려 쓰고, 얻어 쓰는' 철저한 예산 절약으로 화려한 경기장 시설 대신 내용이 알찬 실속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광주시와 조직위는 광주를 찾은 선수단과 임원·심판 등 대회 관계자들에게 남도의 정성을 가득 담은 맛과 멋, 흥을 전달해 큰 감동을 안겨줬다는 평가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93개국 2925명)과 2011 대구육상대회(202개국 1945명)에 비해 가장 적은 예산임에도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4개국 2537명의 선수단(임원·심판진 포함 7467명)이 참가해 실질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단=최권일 기자 cki@

알립니다

8·15 광복절 기념

제5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8월 11일 오전 8시 출발

광주일보사는 오는 8월 11일 화순과 광주를 이어주는 너릿재 옛길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이색적인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너릿재 옛길을 널리 알리고 광복절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대회 코스인 너릿재 옛길은 산림청의 '아름다운 숲 10선'에 선정될 만큼 곳

곳에 편백나무·소나무 등 천연수종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는 명품 숲길입니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가 된 옛 광주일보 3·1마라톤 코스(옛 전남도청-화순군청)의 일부 구간을 복원한 것입니다.

흑서기 대회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마라톤 가족들에게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8월 11일(일) 08:00 출발
- 장소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 접수 : http://marathonworld.kr
- 종목 : 풀코스, 25km, 8.5km, 풀코스 릴레이
- 후원 : 화순군, 화순군의회, 화순군체육회, 광주광역시동구
- 문의 : (061) 375-1288
- 주최 : 광주일보사, 마라톤세상
-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 마라톤세상

光州日報社

북,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북미협상 '기싸움' 차원인 듯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 번째는 430km를 비행했으나, 두 번째 미사일은 690km를 날아가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로 분석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발사한 미사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면서 "모두 고도 50여 km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첫 번째 1발은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두 번째 1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다양한 탐지자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발사된 것보다 사거리가 더 길었고, 나중에 한미 공동평가 결과 69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군의 한 전문가는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도 신형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제원을 한미 공동으로 평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 5일부터 실시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과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기싸움'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적당도 도발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으로 평가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7일 만에 이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Gold Class

골드클래스는 자부심입니다

광주의 주거기준을 높여줄 골드클래스가 옵니다
 사는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부심과 눈부신 가치!
 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광주의 부러움이 됩니다.

Gold Class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26일(금) 오픈

세종 지원1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천산개발
 공동주택 (주)보광건설(주)보광중합건설(주)

Gold Class

화정 골드클래스

8월 OPEN (예정)

세종 (주)금화건설(주) (주)금화건설(주) (주)보광중합건설(주)

광주역

주택진사관

| 주택진사관 |
광주 북구 경열로 250(NC백화점 맞은편)

* 본 이미지는 소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